

## 시설거주여부·기간, 연령 및 성별에 따른 6, 7세 아동의 어휘력\*

Vocabulary Competence of 6- and 7-year-old Children  
by Institutionalization, Age, and Sex

최 나 야\*\*

Choi, Na Ya

유 안 진\*\*\*

Yoo, An Jin

###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vocabulary competence of institutionalized and home-reared 6- and 7-year-old children with the use of the Revised Picture Vocabulary Test(Dunn & Dunn, 1981; Korean version, Kim et al., 1995), administered to 113 institutionalized children and 124 middle class home-reared children. Results indicated that the vocabulary competence of institutionalized children was inferior to that of home-reared children. Children who had lived in an institution for two years or more scored lower than those who had been institutionalized for a shorter time. 7-year-olds scored higher than 6-year-olds, regardless of institutionalization. Home-reared girls scored higher than home-reared boys, but there was no sex difference between institutionalized children. These findings suggest that efforts should be directed toward improving the linguistic environment of institutionalized children.

**Key Words :** 어휘력(vocabulary competence), 시설거주(institutionalization), 언어발달(language development)

\* 접수 2001년 12월 31일, 채택 2002년 1월 16일

\* 시설아동 관련 부분은 서울대학교 BK21 핵심 분야 아동가족학 사업팀이 수행한 연구('빈곤 가족의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동·청소년·여성가장의 소외 문제와 대안가족의 모색')의 일부임.

\*\*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E-mail : choinaya@hanmail.net

\*\*\*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 I. 서론

어휘는 사물이나 사상을 표시하고, 그 특성을 추출하여 일반화 및 범주화를 가능케 함으로써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경험이 전승되게 한다. 어휘력은 “단어들의 집합인 어휘를 이해하거나 구사하는 일에 관한 언어 사용자의 능력(김광해, 1995)”을 말하며, 음성언어 및 문자언어를 수용하고 표현하는 능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언어 발달에 관한 맥락 이론을 편 Bruner (1983)에 따르면, 아동은 환경 속에서 언어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데, 그러한 방법 중 일부는 단어와 구가 갖는 의미를 학습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를 위해서 정통한 어휘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이 필수적이라고 하였다.

단어의 의미를 아는 것은 언어 이해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특히 아동에게 있어서 어휘력은 학습 수행의 기초능력이 된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아동이 단어의 의미를 학습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 단어에 접하게 되는 빈도, 단어가 사용되는 상황과 맥락의 다양성, 그리고 학습의 기준이다(Elshout-Mohr & Daalen-Kapteijns, 1987). 빈도와 다양한 상황이라는 요인에 있어서는 아동의 어휘 학습을 장려하는 열성적인 부모나 교사가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부모나 교사는 단어 의미를 도식적으로 제공해줌으로써 질 높은 단어 학습의 기준을 마련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어휘력은 언어능력 중 환경과 교육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영역으로 꼽힌다(김건환, 1990; 이인섭, 1986). 초기 어휘 학습은 최근 아동의 언어발달과 관련하여 가장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는 분야로, 초기 어휘 학습이 이루어질 때 아동과 어머니간의 상

호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주장(Akhtar, Carpenter, & Tomasello, 1996; Baldwin, 1991; Tomasello & Akhtar, 1995)은 어휘력 증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함을 암시한다.

가정환경과 관련된 자극은 아동의 언어능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 꼽힌다(장영애, 1994). 가정이 속하는 사회적 계층에 따라 아동의 언어 발달 양상이 다르다(Bracken, Howell, & Crain, 1993; Siegel, 1982)는 입장은 가정의 외형적, 물리적 환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에,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나 구조적 측면보다는 아동의 언어발달에 대한 높은 관심 수준과, 자유로운 언어적 표현을 격려하는 가정 내의 분위기가 아동의 언어능력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김건환, 1990; 김미란, 1989; 김재은, 1990; 장영애, 1986; Godbey, 1997; Roberts, Burchinal, & Durham, 1999)은 구성원간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하는 심리적 환경을 중시한다. 부모는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풍부하고 정확한 언어 사용을 장려하고, 직접 언어 모델이 되며, 다양한 언어 자료를 포함하는 환경을 구성함으로써 아동의 언어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김건환, 1990; 김재은, 1990; 박선해, 1994; 이경하·김향희, 2000; 장영애, 1981, 1986; Cross, 1979; Garton, 1995; Godbey, 1997; Golinkoff & Ames, 1979; Roberts et al., 1999; Snow, 1989). 성인은 아동의 대화 상대로서의 역할을 하고, 언어적 교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아동에 대한 성인의 발화(Child Directed Speech, CDS)가 아동의 언어 발달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인임은 분명하다. 이처럼 가족관련 요인들은 아동의 언어 발달에 대해 복잡하고 다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부모가 없거나 부모의 양육이 불가능하여 시설 보호를 받는 아동들의 인지 발달 양상에 관한 연구들은 발달 지체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으며(노봉련, 1997; 신소희, 1985; Bassuk & Rosenberg, 1988; Bassuk, & Rubin, 1987; Bassuk, Rubin, & Lauriat, 1986; Coll, Buckner, Brooks, Weinreb, & Bassuk, 1998; Johnson et al., 1992; McCormick & Holden, 1992; Molnar, 1988; Molnar, Rath, & Klein, 1990; Rescorla, Parker, & Stolley, 1991; Rubin et al., 1996; Whitman, Accardo, Boyert, & Kendagor, 1990; Wood, Valdez, Hayashi, & Shen, 1990; Zima, Bussing, Forness, & Benjamin, 1997), 특히 언어 발달 영역에서의 지체를 보고한다(Bassuk & Rubin, 1987; Rescorla et al., 1991; Whitman et al., 1990; Zima et al., 1997). 이 연구들은 어휘력이나 읽기 능력에 초점을 맞추어 시설아동이 낮은 수준의 언어능력을 보임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일반 가정에서 자라는 아동집단과 비교하여 어휘력 발달의 양상과 격차를 살펴보지 않았으며, 단순히 집이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를 받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등, 연구목적과 지역에 따라 시설에 대한 기준이 제각기 다른 점이 문제시된다. 또한 국내 아동양육시설(이하 '시설')<sup>1)</sup>에 거주하는 미취학 아동이 약 5천 1백여 명, 초등학교생이 약

5천 4백여 명(보건복지부, 2001)인 현재<sup>2)</sup>, 외국과 달리 시설아동의 언어 발달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상황이다.

1981년 아동복지법 공포 이후, 복지시설의 생활공간이 가정과 같은 환경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보편화됨에 따라, 아동양육시설의 물리적 환경은 크게 개선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설들이 여전히 관리·운영상에 필요한 기본적인 시설요건은 갖추고 있는 반면에, 아동의 일상생활에 필요하거나 정서적·교육적으로 적합한 질 높은 설비는 극히 미비한 상황이다(권재용·김종영, 1999; 이명목, 1991). 학습을 위한 설비뿐만 아니라, 학습 지도자와 기타 교육지원 등의 교육 환경이 불안정하고 부족하다는 것이 시설환경의 큰 문제점 중 하나로(이명목, 1991), 향후에는 간접적 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시설아동들의 인지 발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시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정식 학교 교육을 받기 시작하는 시설아동들에게 도움이 될 언어 교육 프로그램의 제작을 위한 근거자료로서의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어휘 습득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영아기 및 유아기 초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학령기의 어휘 발달도 간과할 수 없다. 아동이 학령기에 도달하는 6세 경이 되면, 약 14,000개의 어휘를 습득하게 되고, 학교에 들어간 이후에는 매년 만 여 개의 어휘에 노출되어 그 중 약

1) 이 연구의 대상인 시설아동들을 수용보호하는 육아시설이란, '사회복지시설 중 거주기능이 중심이 되는 시설로서, 가정해체, 빈곤, 부모의 유기 등에 의해 가정의 양육이 불가능해진 3세 이상-18세 미만의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없는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시설'을 가리킨다. 이와 비교하여, 일반아동은 '부모와 함께 거주하며 양육 및 보호를 받는 아동'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2) 2000년 12월 31일 현재, 전국 육아시설에 수용보호 중인 미취학 아동은 5,162명, 초등학교 재학 아동은 5,400명으로 집계되었다(보건복지부, 2001). 1997년 말 이후, 우리 나라에 닥친 경제적 위기에 따른 가정해체로 육아시설에 위탁된 아동의 수가 급증하였다(김광용, 1998; 1999. 12. 18자 조선일보 특집기사).

3,000여 개를 새롭게 습득할 수 있다고 한다 (Kuczaj, 1999).

그러나, 어휘력 검사에 사용된 도구에 따라, 그리고 단어의 다양한 의미에 대한 인지도의 기준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6세 아동의 어휘습득량에 대해서는 연구자에 따라 약 5,000개부터 24,000여 개까지 다양하게 보고 된다(Chall, 1987). 학령기 아동의 어휘 발달은 비록 이전에 비해 느린 속도로 이루어지지만, 제한된 맥락에서 새로운 단어의 의미를 추출해 낼 수 있게 되면서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진행되므로 중요하다(Durkin, 1986). 게다가, 초등학교 학생의 언어능력은 학업성과 높은 상관을 보이므로(김건환, 1990; 신경혜, 1994), 언어능력의 부족은 학교생활이 연장됨에 따라 누적되는 결손을 가져온다(임혜숙, 1998).

따라서, 우리 나라의 학령기 아동들이 보이는 어휘력 발달의 양상에 대해서도 표준화된 검사 도구를 통한 보다 구체적인 연구가 요구가 요구된다. 특히 언어능력을 증진시킴으로써 이미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낮은 수준의 학교적응이 제기되는 시설아동들(성미영 · 이순형 · 이강이, 2001)의 학교적응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시설아동의 어휘력에 대한 탐색적 연구가 수행되어야만 한다.

언어 능력은 다양한 연구를 통해 비교적 성차가 인정되어온 분야로, 전반적인 언어능력(신경혜, 1994)뿐만 아니라, 어휘 습득 및 산출 수준(Bee, Mitchell, Bamard, Eyres, & Hammond, 1984; Bornstein & Haynes, 1998; Bornstein, Haynes, & Painter, 1998; Huttenlocher, Haight, Bryk, Seltzer, & Lyons, 1991; Roberts et al., 1999), 어휘와 문법 기술의 발달 속도(Hyde & Linn, 1988; Levy & Heller, 1992), 읽기 · 쓰기

능력(Corballis & Beale, 1983) 등 여러 하위 영역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앞선다는 결과가 보고 되었다.

그리고 언어 능력상의 성차는 오래 전부터 가사나 육아 활동을 통해 남성보다 활발한 언어 사용을 함으로써 나타난 진화의 결과(Joseph, 2000), 뇌 구조와 기능에 있어서의 차이(Corballis & Beale, 1983; Levy & Heller, 1992) 등으로도 설명되나, 사회화 과정에 있어서의 환경적 영향 때문이라는 해석이 많은 지지를 받는다. 다시 말해, 여아가 남아에 비해 언어 능력이 뛰어나다는 결과가 순수한 생물학적 기반을 갖는다고 보다는 성별에 따라 가정내의 언어 자극이 다른 데서 기인한다는 주장이 더 우세하다(장영애, 1981; Michel, 1994; Samter & Haslett, 1997).

또한 연구에 따라서는 아동의 언어 능력에서 유의한 성차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도 많으며(국주영, 1996; 김수정, 1992; 김지희, 1989; 이소희, 1998; 정영희, 1995; 조경미, 1984), 발견된 경우는 대부분 영아기 등 초기 발달 단계에 해당하므로(Bee et al., 1984; Bornstein & Haynes, 1998; Huttenlocher et al., 1991; Hyde & Linn, 1988; Roberts et al., 1999) 해석상의 주의가 요구된다. 따라서, 취학 시기에 도달한 학령기 아동의 어휘력 발달에 있어서 성차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부모로부터의 양육이 배제된 특수한 환경 맥락에서는 결과가 어떠한지 세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학령기에 도달한 시설아동들의 어휘력 수준에 초점을 맞추고, 이들을 일반아동 집단과 비교함으로써 시설 거주 여부와 거주 기간, 연령 및 성별 등과 어휘력 수준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 대상

이 연구는 서울시 소재의 15개 육아시설에 거주하는 아동 113명과, 부모와 동거하는 중산층 가정의 일반아동 124명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은 조사일을 기준으로 만 6세 0개월부터 7세 11개월까지의 월령에 속하였다. 6세 아동은 취학을 앞두고 있는 상태였고, 7세 아동은 초등학교에 입학한지 10개월 가량 지난 1학년생들이었다. 조사 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표 1>에 제시하였다. 참고로, 시설아동의 입소 사유 중 '경제적 어려움'은 부모의 생존 여부나 결혼 상태와 관련없이 순수하게 빈곤 때문에 입소한 경우만을 포함한다.

그리고 시설아동들의 시설 거주 기간을 분포와 입소 원인을 고려하여 2년을 기준으로 장·단기로 구분하였다. 시설에 입소한 지 24개월이 안 되는 아동들(52.7%)은 우리나라 IMF 구제 금융이 시행된 1997년 말 이후인 1998년 1월 이후에 시설에 입소한 아동들로, 입소 원인을 살펴보면, 부모의 이혼 또는 별거가 34명(58.6%)으로 가장 많았고, 가출 11명(19.0%)이 그 다음 순이었다. 이와 비교하여 시설 입소 기간이 25개월 이상인 아동들(47.3%)은 유기가 15명(28.8%)으로 가장 많아, 영아시설을 거쳐 육아시설에 입소한 경우가 다수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부모가 이혼이나 별거 상태인 경우와 가출을 한 경우가 각각 25%로 나타났다. 두 집단의 입소 사유를 <그림 1>에 나타내었다.

### 2. 측정 도구

그림 어휘력 검사(김영태·장혜성·임선숙·

백현정, 1995)는 Peabody Picture Vocabulary Test-Revised(PPVT-R, Dunn & Dunn, 1981)를 토대로 한국에서 제작된 것으로, 그림을 이용하여 2세 0개월-8세 11개월 아동의 수용어휘 능력을 측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내에서 표준화를 거친 이 검사도구의 연령별 내적 일치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전 연령에서 .85이상으로 검사의 신뢰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 구성을 살펴보면, PPVT-R의 분류체계와 같이, 품사별로 명사(57%), 동사(20%), 형용사(형)(12%), 부사(1%) 등이 포함되었고, 범주별로는 동물, 건물, 옷, 음식, 가구, 가정용품, 신체 부위, 직업, 도형, 식물, 학교 및 사무실의 비품, 기구 및 장치, 악기, 교통기관 등으로 구성되었다. 최종 112개 문항에는 PPVT-R(L형, M형)에서 59개 문항(53%)이 선정되었고, 이 연구에서는 별도의 수정없이 이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6개월 단위로 연령별 시작 문항이 정해져 있어, 6세 0개월부터 6세 5개월까지는 57번, 6세 6개월부터 6세 11개월까지는 65번, 7세 0개월부터 7세 5개월까지는 73번, 7세 6개월부터 7세 11개월까지는 81번부터 검사를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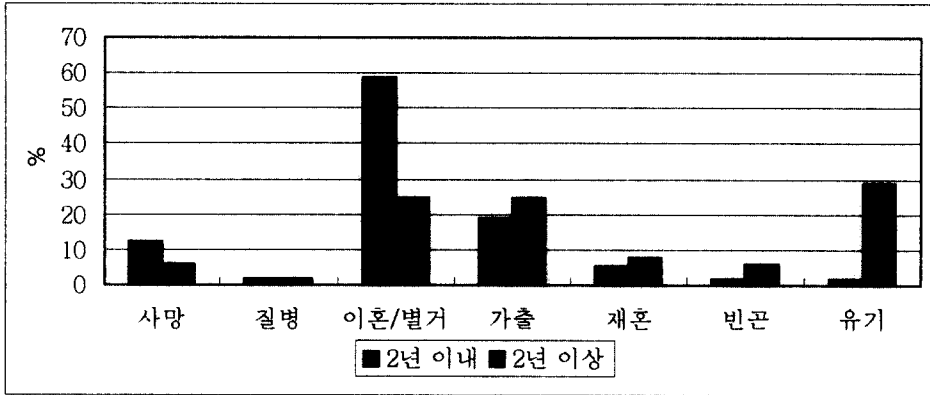
### 3. 조사 절차

2000년 1월 28일부터 2월 28일까지 서울시 아동복지시설 연합회에 소속된 육아시설 중 조사를 허락한 15개 육아시설과 송파구의 S유치원 유치반 3개 학급, 동대문구 J초등학교 1학년 2개 학급에서 조사를 실시하였다. 각 육아시설과 유치원, 초등학교에 문의하여 조사 협조를 요청한 후, 보육사와 교사를 통해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만 6, 7세 아동의 명단과 생년월일을

〈표 1〉 대상아동의 일반적 특성<sup>3)</sup>

변수	구분	시설아동(n=113)	일반아동(n=124)
연령·성별	만 6세	남아	36(31.9)
		여아	21(18.6)
	만 7세	남아	31(27.4)
		여아	25(22.1)
출생순위	첫째	58(51.3)	59(47.6)
	둘째	37(32.7)	42(33.9)
	셋째	6( 5.3)	6( 4.8)
	모름·무응답	12(10.6)	17(13.7)
시설아동의 입소사유	부모의 사망	10(8.8)	
	부모의 질병	2( 1.8)	
	부모의 이혼·별거	47(41.6)	
	부모의 가출	27(23.9)	
	부모의 재혼	7( 6.2)	
	경제적 어려움 유기	4( 3.5)	16(14.2)
부의 학력	중졸 이하		3( 2.4)
	고졸		38(30.6)
	전문대졸		5( 4.0)
	대졸		63(50.8)
모의 학력	중졸 이하		7( 5.6)
	고졸		68(54.8)
	전문대졸		5( 4.0)
	대졸		39(31.5)
일반아동의 가정환경 특성	단순노무직		2( 1.6)
	생산·기술직		11( 8.9)
	상업		13(10.5)
	자영업		27(21.8)
	사무직		42(33.9)
	서비스직		1( 0.8)
	관리직·준전문직		23(18.5)
	전문직		2( 1.6)
	무직		3( 2.4)
	모의 직업	주부	
생산·기술직			1( 0.8)
상업			5( 4.0)
자영업			1( 0.8)
사무직			11( 8.9)
서비스직			5( 4.0)
관리직·준전문직			16(12.9)
월 소득	50만원 미만		3( 2.4)
	51-100만원		5( 4.0)
	101-150만원		24(19.4)
	151-200만원		30(24.2)
	201-250만원		14(11.3)
	251-300만원		22(17.7)
	301-400만원		14(11.3)
	401-500만원		9( 7.3)
	501만원 이상		3( 2.4)

3) 부모 직업 분류는 통계청의 &lt;한국표준직업분류&gt;에 따른 것임.



〈그림 1〉 시설아동의 입소 사유

구하였다. 검사 실시 방법에 대한 사전교육을 받은 아동학 전공의 검사자들과 연구자가 대상 기관을 방문하여 검사를 실시하였다. 각 아동당 검사에 소요된 시간은 6세 약 15분, 7세 약 12분이었다.

또한 시설아동의 경우, 보육사에게 아동의 시설 입소 시기와 형제관계를 물었고, 일반아동의 경우, 부모의 학력, 직업, 월 소득, 형제관계 등을 묻는 부모용 질문지를 첫 방문시에 배부하여 검사일에 100% 회수하였다.

#### 4. 자료분석방법

그림 어휘력 검사에서는 아동의 연령에 따라 기초선이 확립되면 기초선보다 낮은 문항들은 맞은 것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연속적으로 8개 문항 중, 6개를 틀리게 반응하면 검사를 중지하

며 최종 문항이 최고한계선이 된다. 최고 한계선이 확정되면 그 보다 높은 문항들은 틀린 것으로 간주하여 원점수를 계산한다. 즉, 원점수는 <최고한계선-틀린 문항수>로 산출되며, 각 문항은 1점씩 배정한다.

이러한 원점수로부터 백분위점수(Percentile Score)를 구하였다. 예를 들어, 한 아동이 백분위 점수로 60점을 받았다면, 소속 연령 집단에서 60%의 아동들보다 우수한 것을 의미한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위해 SPSS-WIN 10.0 program을 이용하였다. 구체적으로, 빈도분석을 통해 대상 아동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해보고, 시설아동과 일반아동간에, 그리고 시설 거주 기간, 연령 및 성별에 따라 어휘력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test 및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 Ⅲ. 결과 및 해석

#### 1. 시설거주여부 및 기간에 따른 어휘력 비교

시설아동과 일반아동의 어휘력에 대해 t-test

를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검증되었다. 일반아동이 시설아동보다 더 높은 수준을 보였다.

대상 아동들의 연령이 혼합되어 있으므로 환산 점수를 이용하여 비교하면, 아래의 <표 2>에서 제시하였듯이, 시설아동들의 평균점수(43.59)가 일반아동들의 평균 점수(71.27)보다 낮게 나타났다( $t(229.70) = -9.42, p < .001$ ). 이 수치는 표준화된 규준에 원점수를 대입해 구한 백분위 환산점수로, 시설아동의 평균은 소속 연령 모집단에서 하위 43.59%, 일반아동의 평균은 71.27%의 수준에 해당함을 나타낸다.

어휘력이 전체 동일 연령 모집단에서 하위 50%이내인, 즉,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일반아동은 21명(16.9%)인데 반해, 시설아동은 74명(65.5%)으로 나타나, 연령 대비 어휘력 수준이 낮은 시설아동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표 2> 시설아동과 일반아동간의 어휘력 점수

		시설아동(n=113) 일반아동(n=124)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t값
어휘력	원점수	78.51(12.85)	87.59(11.28)	-5.75***
	환산점수	43.59(23.22)	71.27(21.89)	-9.42***

\*\*\*  $p < .001$

그리고 시설아동들의 시설 거주 기간에 따라 어휘력 점수를 비교해보기 위해 2년을 기준으로 장·단기로 구분하였다. ‘연구대상’ 부분에서 제시하였듯이, 이러한 구분은 시설아동의 거주 기간 분포와 입소 원인을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우선, 24개월을 기준으로 대상아동이 약 50%씩 할당되었으며, 그렇게 구분했을 때 두 집단의 입소 사유 분포에도 차이가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그림 1> 참조).

이와 같이, 영아기부터 시설에서 성장한 경우를 포함해 2년 이상 거주한 경우(47.3%)와, 최근 2년 이내에 입소하게된 경우(52.7%)로 구분하면, 어휘력 환산점수에 있어서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

가 발견된다.

<표 3>에서 보듯이, 시설에 거주한 기간이 1-24개월에 속하는 아동들의 평균 어휘력 환산점수(47.86)는 2년 이상 최대 90개월간 시설에 거주해온 아동들의 점수(39.08)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 $t(107.73) = 2.01, p < .05$ ). 따라서, 시설 거주 기간이 2년 이내로 짧은 아동들의 어휘력 수준은 더 오랫동안 시설 보호를 받아온 아동들에 비해 높다고 볼 수 있다.

<표 3> 시설거주기간에 따른 어휘력 점수

시설거주 기간	1-24개월 (n=58)	25-90개월 (n=52)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환산점수	47.86(24.78)	39.08(21.11)	2.01*

\*  $p < .05$

## 2. 연령에 따른 어휘력

일반아동과 시설아동 집단을 구분하여, 연령에 따라 미취학 상태인 6세 아동들과 1학년인 7세 아동들의 어휘력 점수를 비교한 결과, 두 집단 모두 어휘력 원점수에서 7세가 6세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언어 발달이 이루어지는 1년이라는 시간을 고려할 때 당연한 결과로 해석된다.

환산점수로는 6, 7세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두 연령 집단이 각 모집단에서 비슷한 수준의 어휘력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 3. 성별에 따른 어휘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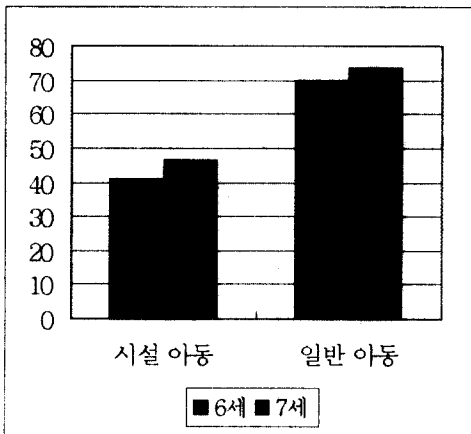
일반아동과 시설아동 집단을 구분하여, 성별에 따라 어휘력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우선, 환산점수를 이용한 성별간



〈표 4〉 연령에 따른 어휘력 점수

	연령	6세(n=65)	7세(n=59)	t값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일반아동	원점수	81.57(10.26)	94.22( 8.28)	-7.59***
	환산점수	69.54(20.03)	73.17(23.80)	- .91
	연령	6세(n=57)	7세(n=56)	
시설아동	원점수	70.32(11.49)	86.86( 7.84)	-8.924***
	환산점수	41.09(23.41)	46.14(22.94)	-1.159

\*\*\* p<.001



〈그림 2〉 연령과 시설거주여부에 따른 어휘력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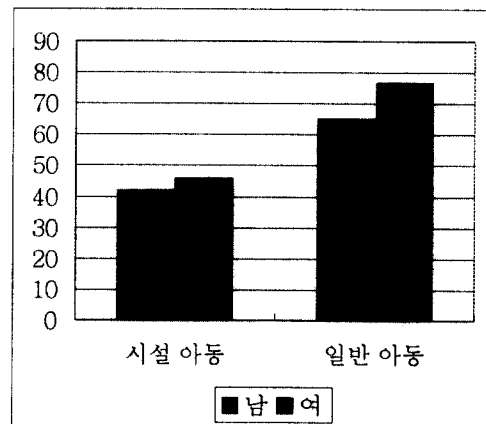
t-test 결과, 일반아동 집단에서는 성차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표 5>에 제시한 바와 같이, 여아의 어휘력 평균 점수(76.69)가 남아의 점수(64.89)보다 월등히 높았다( $t(122) = -3.092, p<.01$ ).

그러나, 시설아동 집단에서는 남아와 여아간에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여기서 시설 거주 여부와 성별에 따른 어휘력에 대한 해석이 요구된다. 시설아동은 일반아동과 달리 어휘력상의 성차를 보이지 않았으므로, 시설에 거주하는 여아들의 어휘력 지체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림 3>에서 시설아동과 일반아동의 어휘력 수준을 성별에 따라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표 5〉 성별에 따른 어휘력 점수

성별	남아(n=57)	여아(n=67)	t값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환산점수			
일반아동	64.89(24.25)	76.69(18.14)	-3.09**
시설아동	41.99(22.00)	45.93(24.95)	- .87

\*\* p<.01



〈그림 3〉 성별과 시설거주여부에 따른 어휘력 점수

이와 같은 결과에 따라, 아동의 성별과 시설 거주 여부간에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2원 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나, <표 6>에 제시한 바와 같이, 성별과 시설 거주 여부에 따른 주효과만이 검증되었다. 성별과 시설 거주 여부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다.

〈표 6〉 성별과 시설 거주 여부에 따른 어휘력 점수

변량원	제곱합(SS)	자유도	평균제곱합(MS)	F
성별	3584.30	1	3584.30	7.29**
시설거주여부	41651.89	1	41651.89	84.68***
성별 * 시설거주여부	889.564	1	889.564	1.81

\*\* p<.01 , \*\*\* p<.001

#### IV. 결론 및 논의

이 연구는 표준화된 어휘력 검사 도구를 이용하여 육아시설에 거주하는 아동들과 부모의 양육을 받는 일반 가정 아동들의 어휘력 수준을 비교하였으며, 시설 거주 기간, 연령, 성별 등에 따라 대상 아동의 어휘력이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몇 가지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설아동과 일반아동의 어휘력 수준은 다르다. 일반아동이 시설아동보다 유의하게 높은 수준을 보였다. 따라서 시설에 거주하는 아동들은 일반아동들에 비해, 의미를 파악하고 사용할 수 있는 어휘의 수가 적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일반아동 집단과 비교하여 연령 대비 어휘력 수준이 낮은 시설아동이 훨씬 많게 나타난 것은 보호시설 아동들의 언어발달 양상을 살펴본 외국 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한다. 몇몇 연구자들은 시설아동에 대해 그림 어휘력 검사(PPVT-R)를 실시한 결과, 약 45%의 아동이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지체 범주에 속한다거나(Zima et al., 1997), 89% 이하가 평균 이하(Whitman et al., 1990)라고 보고하였다.

선행연구들을 참고하면, 인지 발달 검사에서 시설아동이 낮은 수행을 보이는 것에 대해 연구자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제시된다. 우선, 유전적 요인과 영양 결핍이 원인으로 제기되기도

하지만(Morison & Ellwood, 2000; Pawlas, 1996), 시설 거주로 인한 영향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지 밝히는 것이 불가능하다.

Rafferty와 Shinn(1991)은 양육 환경의 불안정성과 양질의 보육 서비스로의 접근 부족 등이 원인이 되어 시설아동의 인지능력 지체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였다. 양육자나 환경이 자주 바뀔 경우 안정적인 발달이 이루어질 수 없을 뿐 아니라(Whitman et al., 1990), 시설아동에 대해서는 보육 서비스의 기회가 제한된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응적이고 자극적인 환경이 구성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또한 열악한 환경은 아동의 성취동기와 자존감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시설 환경이 발달적으로 적합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아동과 보육사간의 충분한 애정적 관계가 형성되지 못한 경우, 아동의 성취동기 자체가 낮아(조은미, 1984) 정상적인 인지발달이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라고 예측되며, 소속환경에 기인하는 시설아동의 낮은 자존감이 언어 지체와 관련되기도 한다(Pawlas, 1996).

게다가 시설아동들은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연습할 기회가 적고, 강화와 보상을 포함하는 적절한 동기를 제공받지 못하며, 개인차 및 개인적 요구에 대한 민감한 반응을 얻지 못하

기 때문에 적절한 인지 발달을 수행하지 못한다(Frank, Klass, Earls, & Eisenberg, 1996). 시설 내에서 각 아동에 대한 개별화가 어려워, 아동의 연령과 심리적 상태, 사회적 성숙도, 지능 수준 등에 알맞은 자극을 제공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요약하면, 시설아동의 언어능력 발달 지체 현상은 과거 가정에서 다양한 부정적 경험을 한 아동들에 대해 시설에서도 개별화 및 보육·교육 서비스를 통한 지적·정서적 자극이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여 연령에 적절한 언어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선행연구들은 언어능력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국주영, 1996; 김수정, 1992; Bornstein, Haynes, & Painter, 1998)과 학업 수행(김건환, 1990; 신경혜, 1994; 임혜숙, 1998)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으므로, 시설아동들은 이와 관련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둘째, 시설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인 아동들은 최근 2년 이내에 입소한 아동들보다 어휘력 수준이 낮았다. 그러므로 영아기부터 시설에 입소하거나 시설 거주 기간이 길어지는 아동들의 언어발달이 특히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시설거주로 인한 인지발달 지체의 누적 효과를 경고한 연구들(신소희, 1985; Coll et al., 1998; Kaler & Freeman, 1994; Morison, Ames, & Chisholm, 1995; Morison & Ellwood, 2000; Rutter & the English and Romanian Adoptees study team, 1998)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시설 거주 기간이 길어질수록 언어 지체의 파급 효과가 커져 읽기 능력 및 학업 성취의 지체가 나타나며,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한다(Frank et al., 1996). 특히 어휘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2-3세 경에는 양육자로부터의 적절한 언

어적 자극이 필수적인데, 불우한 가정환경을 경험하고 어려서부터 시설에서 보호를 받게된 아동들은 다양한 생활 경험의 결핍으로 인해 연령에 적합한 어휘력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시설 거주 기간이 장기화될 경우, 아동의 어휘력 결핍 가능성이 제기된다.

셋째, 연령에 따라 아동의 어휘력 수준이 다르다. 시설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7세 아동들은 6세 아동들보다 어휘력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 1년이라는 물리적 시간을 떠나서 취학 후의 어휘력 신장에 대한 학교 교육의 영향력을 검증해볼 필요가 대두된다. 비록 이 연구에서는 1년여간의 학교 교육을 경험한 7세 집단에서도 시설 거주 여부에 따른 어휘력의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지만, 취학 전의 어휘력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시설아동들에 대해서 학교를 통한 공식 교육의 시간적 양과 질에 따라 어휘력 신장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 예측된다. 이와 관련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성별에 따라 일반아동의 어휘력 수준이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일반아동의 경우 여아가 남아보다 높은 어휘력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시설아동의 경우에는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순수한 생물학적 요인보다는 아동의 성별에 따라 다르게 제공되는 가정 내의 언어적 자극에 기인하여 언어능력의 성차가 나타난다고 본 선행연구들(김미란, 1989; 장영애, 1981; Michel, 1994)과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자세히 설명하면, 시설 아동의 경우 개별적 양육이 어려운 동일한 물리적 환경에서 남·여아가 집단 생활을 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일반아동들의 가정 환경은 훨씬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을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어휘력은 양육자와의 언어적 상호작용의 영향을 특히 많이 받는 영역으로(이경하·김향희, 2000; Garton, 1995; Harris, 1993, Samter & Haslett, 1997에서 재인용), 일반 가정과 시설의 여아들에게 제공되는 어휘 정보에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장영애(1994)는 아동의 성별에 따라 언어능력을 예언해 주는 변인에 차이가 있어, 남아의 경우는 환경의 물리적 측면과 다양한 경험의 제공이 중요하고, 여아의 경우는 발달을 위한 자극 제공과 가정 경제 수준이 중요하다고 보았는데, 이러한 주장은 이 연구의 결과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시설아동에 대해서 PPVT-R을 실시한 결과, 결합 및 경계 영역에 속하는 여아의 비율(71%)이 남아(63%)에 비해 높다고 보고한 연구가 있다(Whitman et al., 1990). 이 연구에서는 특히 시설에 거주하는 5세 이상의 여아들이 그 이전에 비해 어휘력 성장율이 현저하게 떨어져 남아들과 비교된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므로, 시설 거주 기간이 길어지면서 여아들의 어휘력 발달이 저해되어 일반아동 집단의 여아들과 격차가 생긴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시설에 거주하는 6세 미취학 아동과 8세 취학 아동의 성취동기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남아에 비해 여아의 성취동기가 낮은 이유는 시설 여아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편견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조은미, 1984). 즉, 시설아동이라는 지위로 인해 남아보다 여아에게 가중되어 주어지는 편견이 학습과 관련된 성취동기 저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맥락에서 시설 여아들의 어휘력 미발달 양상을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이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론에 대해 논의를 하였다. 아동복지시설은 더 이상 구호시설로서의 존재 역할만을 담당할 수는 없다.

전체 집단에 대한 접근보다는 각 아동에 대한 개별적 접근을 통해 양육과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제도적으로 보육사 대 아동 비율<sup>4)</sup>을 점차 낮추고, 시설 내에서 가족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정상화의 관점에서 볼 때, 시설아동의 생활환경은 일반아동의 생활환경과 유사해야 한다(권재용·김종영, 1999; 김응석 외, 1995). 현재 몇몇 육아시설이 오래된 시설 설비를 재정비하고, 대규모의 연령별 집단수용 주거 형태에서 가족 형태의 소규모 연령 혼합 주거 형태로의 변화를 꾀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하겠다.

또한 제도 변화만으로 회복할 수 없는 측면을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실시하여, 이 연구에서 다룬 어휘력을 포함한 인지능력의 발달과 학업 수행에 있어서 시설아동들이 불이익을 경험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동의 언어능력이 학업성적(김건환, 1990; 신경혜, 1994; 임혜숙, 1998), 사회적 능력(국주영, 1996; 김수정, 1992; Bornstein, Haynes, & Painter, 1998) 및 지각된 자기 능력(Jambunathan & Norris, 2000)과 깊이 관련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설아동들에 대한 어휘력 증진 프로그램은 인지적 결손이 누적되는 것을 막고, 바람직한 학교적응을

4) 이 연구의 조사 대상이었던 15개 육아시설의 수용 아동 수는 평균 63.27명, 보육사 수는 평균 5.40명이었으므로 보육사 대 아동의 비율은 1 : 11.91인 셈이다. 참고로, 현재 우리 나라의 육아시설에 대한 보육사 배치의 법적 기준은 '아동 10인당 1인, 10인 초과시마다 1인씩 증원'이며, 정부 보조 기준은 '아동 12인당 1인'이다(보건복지부, 2000). 법적 배치 기준도 일본과 비교하여 절반이 안 되는 상황인데, 정부보조 기준은 이에도 못 미치고 있다. 우리 나라 육아시설의 경우, 3-6세의 학령전 아동과 초등학생이 전체 인원의 절반을 차지하므로, 보육사 대 아동의 비율이 높으면 아동 방임의 가능성도 그만큼 높다(김응석 외, 한국보건사회연구원편, 1995).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된다.

아울러 학령기 시설아동들의 바람직한 학교 적응과 인지발달을 위한 학교와 교사의 배려도 요구된다. 타인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아동의 언어 발달을 촉진하고 도우며, 발달의 결과인 언어능력은 이후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돕는 순환 작용을 한다(Garton, 1995)는 점은 시설아동의 언어 발달을 돕는 성인의 지원적 역할이 필요함을 제기한다.

이 연구는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시설아동들을 다수 표집하여 그들의 어휘력을 조사하였다. 현재 우리 나라의 시설아동 수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그들의 언어능력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미비한 상황이므로 이 연구는 시기적절성이라는 의의를 갖는다. 또한 시설아동의 어휘력 수준을 일반아동과 비교하여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고, 시설 거주 기간에 따라서도 어휘력 수준에 차이가 있음을 밝힘으로써, 시설아동에 대한 복지적·교육적 노력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제한점도 가진다. 우선, 횡단적 연구로서, 동일한 대상에 대해 연령에 따른 비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 시점에서만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시설아동과 일반아동 모두에 대해 연령 증가에 따라 변화하는 언어능력을 측정하는 종단적인 연구가 더욱 바람직하다.

또한, 시설아동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변수로써 포함하지 못하였다. 비교집단인 일반아동에

대해서는 질문지를 이용하여 부모의 학력과 직업 및 소득 수준 등에 대해서 사전 조사를 할 수 있었으나, 시설아동의 경우, 입소시의 신상 기록 자료가 불완전하고 보육사도 아동의 성장 배경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아, 입소 원인과 시설 거주 기간을 제외한 다른 자료를 변수로 포함하는 것이 불가능했음을 밝힌다. 그리고 조사를 실시한 15개 육아시설에 대한 평가 작업이 연구에 포함되지 못하였다. 아동에 대해 각 시설이 제공하는 언어 환경이 다를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

논의를 맺으며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자면, 우선, 동일한 주제에 대하여 장기 종단적인 연구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연령 증가에 따른 어휘력 변화 양상을 파악하고, 집단간에 엄밀한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년 이상 동일한 대상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어휘력과 같은 개별 하위 언어능력에 대한 검사뿐 아니라, 통합적인 언어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과학적인 검사가 개발되어 표준화를 거쳐야 한다.

이를 위해서 이 연구와 같이 기초 자료가 될 만한 연구들이 계속적으로 실시되어 밀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아동 언어능력 검사의 개발을 위한 직접적인 연구도 가속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이 연구 결과, 시설아동의 어휘력이 일반아동에 비해 저조함이 밝혀졌으므로 시설아동의 어휘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된 많은 연구가 요구된다.

## 참 고 문 헌

강인범·최홍렬·이길성(1999). 12. 18). 버려진 아이들. 조선일보, pp. 1, 3.  
국주영(1996). 학령전 아동의 언어능력과 사회적 능

력. 단국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권재용·김종영(1999). 육아시설의 생활공간 구성 형태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5(4), 63-72.

- 김건환(1990). 가정의 사회·문화적 배경이 언어능력 및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언어 사회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광웅(1998). 경제 위기와 아동. IMF 관리체제에서의 아동, 청소년 생활변화와 적응. 1998년 한국아동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pp. 3-18.
- 김광해(1995). 국어어휘론 개설. 서울: 집문당.
- 김미란(1989). 가정환경 변인과 유아의 언어능력 및 인지양식. 경북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수정(1992). 5세 유아의 인지, 신체, 사회성 및 언어능력 발달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영태·장혜성·임선숙·백현정(1995). 그림어휘력 검사. 서울 장애인 종합복지관.
- 김용석 외(1995). 아동복지수용시설 운영평가 및 개선방안.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재은(1990). 아동의 인지발달. 서울: 창지사.
- 김지희(1989). 4세 유아의 언어 및 사고능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노봉련(1997). 시설아동의 학업부진의 원인과 그 대안에 대한 연구 - 경인지역을 중심으로-. 서울신학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선훈(1994). 그림책 읽기를 통한 어머니의 언어적 상호작용 효과가 유아의 언어능력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보건복지부(2000). 아동복지시설일람표. 서울: 보건복지부.
- \_\_\_\_\_ (2000). 아동복지사업 보조금 집행안내(인터넷 자료).
- 성미영·이순형·이강이(2001). 시설아동과 일반아동의 초기 학교적응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39(1), 53-64.
- 신경혜(1994). 아동용 수용언어 검사도구에 의한 학령전 아동의 언어발달 수준 평가. 세종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신소희(1985). 시설아동의 사회적 부적응 문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경하·김향희(2000). 정상아동의 사회·언어적 요소간의 상관관계 연구. 언어청각장애연구, 5(2), 5-19.
- 이명목(1991). 육아시설 퇴소청소년 지원방안 연구 - 당사자의 의식과 욕구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7, 175-201.
- 이소희(1998). 아동의 사회계층이 언어능력과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인섭(1986). 아동의 언어발달-한국 아동의 단계별 위상. 서울: 개문사.
- 임혜숙(1998). 초등학교 학생의 개인적 변인이 언어능력에 미치는 영향 분석. 순천향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장영애(1981). 가정환경변인과 4-6세 아동의 언어능력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_\_\_\_\_ (1986). 아동의 가정환경과 발달 특성간의 인과 모형 분석.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_\_\_\_\_ (1994). 아동의 언어능력과 환경변인과의 관계 분석Ⅱ: 만5세 아동을 대상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2(3), 171-184.
- 정영희(1995). 성별, 연령에 따른 참조적 의사소통 훈련이 유아의 언어능력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조경미(1984). 6세 아동의 개념화양식과 언어능력과 의 관계.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조은미(1984). 시설아동의 성취 동기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Akhtar, N., Carpenter, M., & Tomasello, M. (1996). The role of discourse novelty in early word learning. *Child Development*, 62, 635-645.
- Baldwin, D. A. (1991). Infants' contribution to the achievement of joint reference. *Child Development*, 62, 875-890.
- Bassuk, E. L., & Rosenberg, L. (1988). Why does family homelessness occur? A case-control study.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78, 783-788.
- \_\_\_\_\_, & Rubin, L. (1987). Homeless Children: A neglected population.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7(2), 279-286.
- \_\_\_\_\_, \_\_\_\_\_, & Lauriat, A.

- (1986). Characteristics of sheltered homeless families.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76, 1097-1101.
- Bee, H. L., Mitchell, S. K., Barnard, K. E., Eyres, S. J., & Hammond, M. A. (1984). Predicting intellectual outcomes : Sex differences in response to early environmental stimulation. *Sex Roles*, 10(9/10), 783-803.
- Bornstein, M. H, & Haynes, M. (1998). Vocabulary competence in early childhood : Measurement, latent construct, and predictive validity. *Child Development*, 69(3), 654-671.
- \_\_\_\_\_, \_\_\_\_\_, & Painter, K. M. (1998). Sources of child vocabulary competence : A multivariate model. *Journal of Child Language*, 25(2), 367-393.
- Bracken, B. A., Howell, K. K., & Crain, M. (1993). Prediction of caucasian and African-American preschool children's fluid and crystallized intelligence : Contributions of maternal characteristics and home environment.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2(4), 455-464.
- Bradley, R. H., Caldwell, B. M., Rock, S. L., Barnard, K. E., Gray, C., Hammond, M. A., Mitchell, S., Siegel, L., Ramey, C. T., Gottfried, A. W., & Johnson, D. L. (1989). Home environment and cognitive development in the first 3 years ethnic groups in North America. *Developmental Psychology*, 25, 217-235.
- Bruner, J. S. (1983). *Child's talk : Learning to use language*. New York : Norton
- Chall, J. S. (1987). Two vocabularies for reading : Recognition and meaning. In M. G. McKeown & M. E. Curtis(Eds.), *The nature of vocabulary acquisition* (pp. 7-17). Hillsdale, NJ : Erlbaum.
- Coll, C. G., Buckner, J. C., Brooks, M. G., Weinreb, L. F., & Bassuck, E. L. (1998). The developmental status and adaptive behavior of homeless and low-income housed infants and toddlers.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88(9), 1371-1374.
- Cross, T. (1979). Mothers' speech adjustment and child language learning : Some methodological considerations. *Language Sciences*, 1, 3-25.
- Durkin, K. (1986). Language and social cognition during the school years. In K. Durkin (Ed.), *Language development in the school years*. London : Croom Helm.
- Elshout-Mohr M., & Daalen-Kapteijns M. M. van. (1987). Cognitive process in Learning Word Meanings. In M. G. McKeown & M. E. Curtis (Eds.), *The nature of vocabulary acquisition* (pp. 53-71). Hillsdale, NJ : Erlbaum.
- Frank, D. A., Klass, P. E., Earls, F., & Eisenberg, L. (1996). Infants and young children in orphanage s : one view from pediatrics and child psychiatry. *Pediatrics*, 97(4), 569-579.
- Garton, A, F. (1995). *Social interaction and the development and cognition*. East Sussex : Lawrence Erlbaum Associates Ltd.
- Godbey, S. F. (1997). Your every word; More talk builds a brighter mind. *Prevention*, 49(3), 39-40.
- Golinkoff, R. M., & Ames, G. J. (1979). A comparison of fathers' and mothers' speech with their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50, 28-32.
- Huttenlocher, J., Haight, W., Bryk, A., Seltzer, M., & Lyons, T. (1991). Early vocabulary growth : Relation to language input and gender. *Developmental Psychology*, 27, 236-248.
- Hyde, J. S., & Linn, M. C. (1988). Gender differences in verbal ability :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04, 53-69.
- Jambunathan, S. & Norris, J. A. (2000). Perception of self-competence in relation to language competence among preschoolers. *Child Study Journal*, 30(2), 91-102.
- Johnson, D. L., Swank, P., Howie, V. M., Baldwin, C. D., Owen, M., & Luttman, D. (1992). Does

- HOME add to the prediction of child intelligence over and above SES?.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54(1), 33-40.
- Joseph, R. (2000). The evolution of sex differences in language, sexuality, and visual-spatial skills. *Archives of Sexual Behavior*, 29(1), 35-66.
- Kaler, S. R., & Freeman, B. J. (1994). Analysis of environmental deprivation: cognitive and social development in Romanian orphan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and Allied Disciplines*, 35(4), 769-784.
- Kuczaj, S. A. (1999). The World of words: Thoughts on the development of a lexicon. In M. Barrett (Ed.), *The development of language* (pp. 133-155). East Sussex: Psychology Press.
- Levy, J. & Heller, W. (1992). Gender differences in human neuropsychological function. In A. A. Gerall, H. Moltz & I. L. Ward (Eds.), *Handbook of Behavioral Neurobiology, Vol. 11. Sexual Differentiation*. (pp. 245-274). NY: Plenum.
- McCormick, L. & Holden, R. (1992). Homeless children: A special challenge. In K. M. Paciorek & J. H. Munro (Eds.), *Early childhood education: annual edition 95/96* (pp. 25-30). Guilford, CT: Dushkin Publishing Group/Brown & Benchmarking Publishers.
- Michel, G. F. (1994). Sex difference in parental influences on children's story-telling.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55(1), 47-59.
- Molnar, J. M. (1988). *Home is where the heart is: The crisis of homeless children and families in New York City*. New York: Bank street college of education.
- \_\_\_\_\_, Rath, W. R., & Klein T. P. (1990). Constantly compromised: The impact of homelessness on children. *Journal of Social Issues*, 46(4), 109-124.
- Morison, S. J., Ames, E. W., & Chisholm, K. (1995). The development of children adopted from Romanian orphanages. *Merrill-Palmer Quarterly*, 41, 411-430.
- \_\_\_\_\_, & Ellwood, A. (2000). Resilience in the aftermath of deprivation: A second look at the development of Romanian orphanage children. *Merrill-Palmer Quarterly*, 46(4), 717-743.
- Pawlas, G. (1996). Homeless children: Are they being prepared for the future? *The Educational Forum*, 61, 18-23.
- Rafferty, Y. & Shinn, M. (1991). The impact of homelessness on children. *American Psychologist*, 46(11), 1170-1179.
- Rescorla, L., Parker, R., & Stolley, P. (1991). Ability, achievement, and adjustment in homeless children.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61, 210-220.
- Roberts, J., Burchinal, M., & Durham, M. (1999). Parent's report of vocabulary and grammatical development of African preschoolers: Child and environmental associations. *Child Development*, 70(1), 92-106.
- Rubin, D. H., Erickson, C. J., Agustin, M. S., Cleary, S. D., Allen, J. K., & Cohen, P. (1996). Cognitive and academic functioning of homeless children compared with housed children. *Pediatrics*, 97(3), 289-295.
- Rutter, M., & The English and Romanian adoptees study team. (1998). Developmental catch-up, and deficit, following adoption after severe global early privation.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9, 465-476.
- Samter, W., & Haslett, B. B. (1997). Family influences on communicative and social development. In B. B. Haslett, & W. Samter (Eds.), *Children communicating - The first 5 years* (pp. 160-191).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Siegel, L. S. (1982). Reproductive, prenatal, and environmental factors as predictors of the cognitive and language development of preterm and full-term infants. *Child Development*, 53, 963-973.



- Snow, C. E. (1989). Understanding social interaction and language acquisition : Sentences are not enough. In M. Bornstein & J. S. Bruner (Eds.), *Interaction in human development*(pp. 83-103). Hillsdale, NJ :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 Tomasello, M., & Akhtar, N. (1995). Two-year-olds use pragmatic cues to differentiate reference to objects and actions. *Cognitive Development, 10*, 201-224.
- Whitman, B. Y., Accardo, P., Boyert, M., & Kenda-gor, R. (1990). Homelessness and cognitive performance in children : A possible link. *Social Work, 35*(6), 516-519.
- Wood, D., Valdez, R. B., Hayashi, T., & Shen, A. (1990). Homeless and housed families in Los Angeles : A study comparing demographics, economic and family function characteristics.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80*, 1049-1052.
- Zima, B. T., Bussing, R., Forness, S. R., & Benjamin, B. (1997). Sheltered homeless children : Their eligibility & unmet need for special education evaluations.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87*(2), 236-240.